



**인니 마을 뒤덮은 화산재** 인도네시아 북 수마트라의 카레지역에서 시나봉 화산이 분화한 가운데 2일 티가판쿠르 마을의 건물 지붕과 도로, 차량 등이 온통 화산재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 말레이시아 '자국 우선주의'... 中 큰 손들 긴장

## 6조 전철 사업 말레이 기업 우대 중국 투자자들과 갈등 가능성

말레이시아가 자국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말레이계 기업을 우선해 참여시키면서 현지 건설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 투자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2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달 17일 열린 송아이 불로-카장 전철(MRT) 개통 기념식에서 현 정부의 말레이계 우선 정책이 성과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230억 링깃(약 6조원)을 들여 슬랑오르 주(州) 송아이 불로에서 카장까지 51km 구간에 전철을 개설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50%가 '부미푸트라'(말레이계 본토민) 업체라고 밝혔다.

또, 각 역에 들어설 상가도 51%를 말레이계에 우선 할당했다면서, 말레이계 우대 정책이 자유경쟁보다 비효율적인 견해와 달리 공사 기간이 단축돼 20억 링깃(약 524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고 강조했다.

나집 총리는 중국의 대대적 투자로 진행되는 동부 해안 철도 건설 사업과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건설 사업, 국철 및 모노레일 개선 사업 등 철도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대다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8월로 예정된 차기 총선을 앞두고 말레이시아 인구 3100여만 명의 약

60%를 차지하는 말레이계 유권자의 지지를 공고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홍콩 영자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나집 총리의 '말레이 우선' 행보가 중국 투자자들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내 철도와 항만 건설에 향후 20년간 4000억 링깃(약 105조원)을 투자하기로 해 저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장기화 등으로 침체에 빠진 말레이시아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중국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 특히 말레이계에 수주를 몰아준다면 중국 투자자와 건설사들이 납득하

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말레이시아 야당인 민주행동당(DAP) 소속 웅 키양 민 하원의원은 "중국 대기업 대다수는 자국 내의 초과설비 문제를 해외 프로젝트 참여로 해소하길 원하기에 사업 상당 부분을 현지 업체에 넘기는데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흐리만 룩만 말레이시아 국제전략연구소(ISIS) 수석 연구원은 "중국이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민족) 집단 간에 형성된 미묘한 균형과 부미푸트라 정책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파른 학습 곡선을 거친 뒤에는 중국도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맥락을 더욱 정교히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 트럼프 '러 스캔들' 장남 입단속 시켰다

### WP "대선 연계 부인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사진)에게 러시아 측 인사와의 회동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지시했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해 대선 기간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에게 타격을 줄 정보 제공을 약속받고 러시아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 '러시아 스캔들' 중심인물로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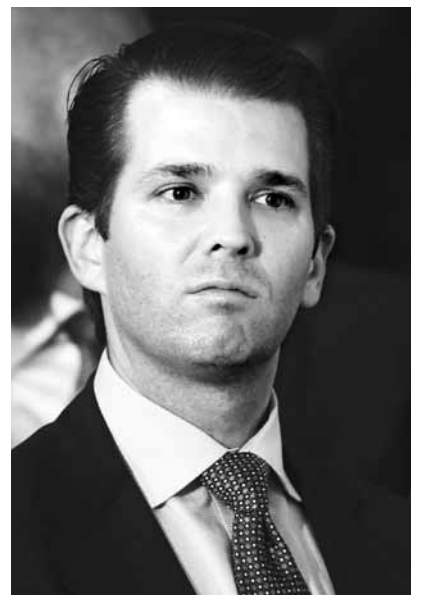
회동 사실이 알려진 이후 처음으로 낸 성명에서 트럼프 주니어는 이 만남에서 "러시아 어린이 입양 프로그램을 주로 논의했다"며 "이 문제는 대선 이슈도 아니었으며 후속 만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아들에게 이런 내용의 성명을 내라고 지시했다.

애초 보좌관들은 트럼프 주니어가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이 폭로돼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한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 계획이 바뀌었다고 WP는 전했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가 회동 주선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직접 공개하면서 러시아 측 인사를 만나 어린이 입양 문제를 논의했다는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후보에 대



한 러시아와 러시아 정부 지원의 일부"인 "매우 민감한 고급 정보"를 주겠다는 귀뜸을 받고 러시아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이메일을 통해 밝혀졌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성명을 명확하게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관여는 했으며, 어떤 아버지라도 할 수 있는 제안을 했다"며 "발표된 성명은 진실이며 부정확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언론은 트럼프 주니어의 성명은 지난해 베셀니츠카야와의 만남이 대선 캠페인과 관련됐음을 부인했지만, 추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70년 英 여왕 외조' 필립공, 왕실 업무 은퇴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91)의 남편 필립공(95)이 2일(현지시간) 버킹엄궁에서 열리는 영국 해병대 퍼레이드 참석을 마지막으로 왕실 업무에서 은퇴한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필립공은 1952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한 이래 2만2219회 단독으로 공무를 수행했으며, 여왕과 함께한 왕실 업무는 훨씬 더 많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해군 사관이었던 필립공은 지난 65년 동안 637차례 해외를 방문했고, 5500번의 연설을 했으며, 780여개 단체의 대표 혹은 회원, 후원자를 역임했다.

필립공은 1953년 그 전해 사망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부친 조지 6세 왕에 이어 육군 총사령관 자리를 이어받았다.

필립공은 거의 70년간 엘리자베스 여왕의 곁을 지켰으며,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왕실 업무를 수행한 통치자의 배우자다.

앞서 버킹엄 궁은 지난 5월 "필립공이 올가을부터 공식 일정을 더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의 은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계속해서 왕실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필립공도 여왕과 함께 일부 행사에 참석할 수도 있다. 필립공은 지난 6월 병원에 입원해 감염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나이에 비해 여전히 건강한 편이다.

최근 윌리엄 왕세손은 왕실 업무에 더 집중하기 위해 구조 헬기 조종사 일을 그만뒀다. /연합뉴스



올해 95세인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공(오른쪽)은 2일(현지시간)을 끝으로 단독으로 수행하는 왕실 업무에서 은퇴한다. 지난해 6월 엘리자베스 여왕의 9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 모습. /연합뉴스

## 日 살인 부른 비트코인

### 다단계 투자 갈등인 듯

일본에서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둘러싼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했다.

2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愛知)현과 시가(滋賀)현 경찰은 전날 아이치현 나고야(名古屋)시 거주 여성 A(62)씨가 행방불명된 사건과 관련해 B(18)군, C(20)씨 등 남성 2명을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비트코인 다단계 관련 투자 사업 설명회에 참가한 뒤 행방불명됐다. 지난달 31일 인근 시가현 다카츠의 맴 인근 숲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경찰에서 비트코인의 투자 사업을 둘러싸고 A씨와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한 갈등의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건강식품 판매 일을

하는 A씨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인의 권유를 통해 비트코인 다단계 사업 투자 세미나에 참가한 것이 계기가 됐다.

A씨는 다단계 판매조직의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B·C씨와 알게 됐고 이후 컴퓨터 조작 방법을 배우면서 서로 별명을 부를 정도로 친해졌다.

조사 결과 C씨는 A씨의 사체를 유기한 뒤 A씨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기도 했다.

C씨의 집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조사한 결과 C씨는 A씨의 계좌에 있던 10여만원(약 100여만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B씨와 C씨 모두 A씨를 살해한 뒤 유괴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에게 살인 혐의도 적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점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원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1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점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국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점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점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점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함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